

멀고 먼 나라의 작은 아이 이야기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지은이 주제 마우루 지 바스콘셀로스
(포르투갈 사람의 영혼을 가진 브라질 아저씨)
번역 박 동 원선생님 / 펴낸 곳 동녘

<나의 라임오렌지나무>를 소개하는 짧은 글은 “어느 날 슬픔을 발견한 한 꼬마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고 싶어 집니다. “너무 큰 슬픔을 빨리 알아버린 아이 이야기”

바스콘셀로스 아저씨가 자라나던 어린 시절의 브라질에는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겨우 다섯 살에 구두땀이 통을 메고 거리에 나가야 하는 ‘제제’ 같은 아이가 아주 많았나 봅니다.

다. 그건 우리나라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어릴 때도 똑같지요. 어린 제제가 크리스마스에 단 한 개의 선물도 받지 못해 낙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진짜 제제를 슬프게 한 건 작은 라임오렌지나무에 이름 붙여주고 얘기하고, 박쥐와 놀고, 마음속으로 노래 부를 줄 아는 그 무한한 상상력과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엄청난 장난꾸러기 다섯 살 제제의 하루를 쫓아가다보면 눈물이 찼글 나올 만큼 웃기지요. 그리고 진짜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며 살고 싶은 아이 제제가 뾰르뚜가라고 부르게 된 포르투갈 아저씨 마누엘 발라다리스 씨를 만나면서 가난한 제제의 세상은 행복이 넘치는 빛나는 삶이 시작됩니다. 발라다리스 씨를 어처구니없이 잃게 되기 전까지는.

그 깊은 슬픔을 가슴에 담고 어른이 된 제제-바스콘셀로스 아저씨는 예전의 뾰르뚜가 아저씨처럼 아이들에게 딱지와 구슬을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까지 써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글 · 김영숙 / 시인, 해오른누리기획실장>